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성경으로 유혹 극복하기

찬미예수님! 어느덧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시기는 먼저 내적으로는 참회와 속죄의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쇄신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극기와 절제, 자선과 선행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수난을 함께 체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부활을 갈망하는 시기입니다. 결국 사순시기는 우리의 내적인 준비와 외적인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난에 깊이 동참하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순시기가 시작되면, 각자 나름대로 사순시기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에 맞춰서 한 가지 정도씩 스스로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수난에 깊이 동참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 마음먹은 것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 사순시기 동안에는 특별히 술이나 담배를 끊어보겠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단식을 해보겠다든지, 매일 평일미사에 참석해보겠다는 식의 다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쉽게 실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마음

먹었던 다짐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유혹거리들은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다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어 그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걷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자마자 악마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그분께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악마는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서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옵니다. 배가 고픈 예수님께 음식으로 유혹을 하는가하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함정의 덫을 파놓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놓기도 하며,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을 해보시오'하며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악마의 유혹에 맞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은 우리를 모든 유혹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줄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더욱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신앙인, 올바른 믿음을 지닌 신앙인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 삶의 참된 양식으로 삼는다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사순시기가 시작된 지금, 성경을 가까이 해보겠다는 스스로의 다짐! 한 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남성동 본당 보좌 이승준 도미니코 신부

전 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하느님 모상을 닮았으면서도 나약한 탓으로 죄에 빠지는 인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악을 뿌리치듯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정성되이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본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창세기 2장 7절-9절. 3장 1절-7절

안 내 : 사람은 유혹자가 이끄는대로 따르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묵 상 : 우리의 유혹자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소한 말과 평범한 일상 속에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다가와 우리가 하느님을 외면하도록 만듭니다.

화 답 송 :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2독서 : 로마서 5장 12절-19절

안 내 :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이 왔고,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묵 상 : 우리는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마태오 4장 1절-11절

강　　론 : '성경으로 유혹 극복하기'(1-2쪽)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 160번 '하느님의 어린양'

영성체 후 묵상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은 포근한 곳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없고 스산한 바람만 부는 그곳에서 유혹자를 만납니다.
나의 재능이 빛을 잃고, 재력도 사라져 버릴 때,
나를 찾아주는 이 없는 고독 앞에서,
내가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유혹자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과 명예와 인기를 주겠다."
<침묵>
이 순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평화, 기쁨, 사랑, 인내, 친절, 절제, 진실, 온유를 뿌리십니다.
성령이 차지한 자리에는 유혹자도 힘을 잃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 공소사목 성금

김정길님	*50,000*원	외남공소	*50,000*원
김창환님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80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 림

■ 지구 구역·반장연수
· 북부지구 : 3월 5일(주일)
  - 휴천동 성당
· 동해지구 : 3월 12일(주일)
  - 영해 성당(3월 7일까지 신청)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구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2017년 상반기 주일학교 수녀모임
· 일시 : 3월 6일(월) 13:30 ~ 7일(화)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 참가비 : 1인 45,000원

■ 공소 1일 교육
· 3월 9일(목) : 점촌동 본당 산북공소
· 3월 15일(수) : 옥산 본당 청리공소
· 시간 : 14:00 - 18:00
· 주제 : '가정의 쇄신을 위하여'

■ 중고등부 회장단 모임
· 일시 : 3월 11일(토) 13:30 ~ 12일(주일) 15:3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본당 중.고등부 회장단
· 회비 : 1인 40,000원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구, 두레판 3월호
· 신청 : 3월 8일(화)까지 사목국으로

■ 3월 예비신학생모임
· 일시 및 장소 :
3월 12일(주일) 12:00 (태화동본당)
안동·의성·북부·동해지구
3월 19일(주일) 12:00 (모전동본당)
상주·문경지구
· 문의 : 사목국으로(858-3114~5)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1
· 일시 : 3월 13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주제 : 루카 복음 1
· 준비물 : 신,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2017년 안동 48차 선택주말
· 일시 : 3월 31일(금)19:00-4월 2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054)652-0591~3
· 대상 : 미혼남여, 사제, 수도자, 신혼부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약간의 간식, 미사준비
· 참가비 : 80,000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 대상 :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15쌍)
· 일시 : 3월 18일(토)-19일(주일)
· 피정비 : 부부 12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옥산본당 새 단장 성전 감사미사
· 일시 : 3월 19일(주일) 15:00
· 주례 : 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2017 수쉬페 도미네 생활성가 음악피정
· 3월 19일(주일) 19:30 용상동성당
· 4월 2일(주일) 19:30 영해성당
· 5월 14일(주일) 19:30 공검성당

▣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청년- 3월 11일(토) 14:00
청소년- 3월 12일(주일) 14:00
· 장소 : 서울 길음동 본원
· 문의 : 010-2310-2754, www.sjbp.or.kr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3월 12일(주일) 14:00
· 장소 : 부산 부곡동 본원
· 문의 : 010-9319-1690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 4장
혼인의 사랑

사랑은 용서합니다

106. 우리가 모욕을 당하거나 실망하였을 때에도, 용서는 가능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일치는 지대한 희생정신으로써만 보존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모든 가정 구성원들에게 이해, 인내, 용서, 화해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관대한 개방성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이기심, 불화, 긴장, 갈등이 얼마나 심하게 가정의 일치를 침해하고 때로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는지를 모르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분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07. 오늘날 우리는,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받게 되는 비판적 시각은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이들의 호의를 기피하고 대인 관계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다른 이를 탓하는 것은 거짓 위안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난날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로 다른 이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108.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께 용서받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체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에 앞서는 사랑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며,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하느님 아버지의 자애는 돈으로 사거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심지어 다른 이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사랑을 보여주고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은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긴장이 계속되고 서로를 단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와 함께 기뻐합니다

109. '카이레이 에피 테 아디키아'(*chairei epi te adikia*)라는 표현은 사람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성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인간의 사악한 태도입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와 반대되는 '신카이레이 테 알레테이아'(*synchaírei te aletheía*)로, 이는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이의 존엄이 인정받고 그들의 능력과 선행이 보상받을 때, 우리가 다른 이의 좋은 일에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늘 자기 자신을 남과,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와 비교하며 경쟁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의 실패에 남몰래 기뻐하는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10. 사랑을 하는 이가 다른 이를 위하여 선을 실천할 수 있거나 다른 이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에, 자신도 행복하게 살게 되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시기"(2코린 9,7 참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히 다른 이의 행복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행복에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한다면 기쁨이 없는 삶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사도 20,35)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언제나 가족 가운데에 한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나머지 가족들이 그를 위해 축하해 주리라 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신부님은 2012년 9월 5일 ㅇㅇ성당 주임신부님으로 부임하셔서 4년 6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사목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42년간의 사제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원로사목자로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려 깊고 인자하시며,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주임신부님을 지켜보면서 정말 훌륭하시고 좋은 목자를 우리 본당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즐거웠고 편안했으며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신부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하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신자들과 소통하셨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잘 한다고만 하시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고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의 칭찬은 ㅇㅇ성당 신자들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왕성한 호기심과 탐구력으로 시대를 앞서가셨습니다.

늘 젊게 사셨고 부지런 하셨으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셨습니다.

신자들을 중심으로 본당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시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자립심을 키웠습니다.

오랫동안 ME를 지도하신 신부님답게 가정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매년 12월 성가정축일에 해주신 혼인 갱신식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부부가 두 손을 마주잡은 채 가슴이 먹먹해지는 얘기를 듣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가 갈수록 혼인 갱신식에 참여하는 부부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풍부한 인맥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성당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부탁 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애쓰신 덕분에 우리는 좋은 교육관과 넓은 주차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위해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함께 먼 길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걱정하고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고통으로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주임신부님은 든든한 목자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신부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비록 신부님은 떠나시지만 그 인자한 미소, 따뜻한 손길은 오랫동안 신자들의 가슴에 남아 신앙생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ㅇㅇ성당 신자들은 신부님의 가르침대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중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 베풀어주신 고마운 마음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무겁던 짐들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신부님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의 퇴임을 축하드리며 영·육간에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